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7 호 < 2011. 3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개최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5일 의학관A동 김옥길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6명과 학부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욱 총장, 박혜영 의전원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2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이화 뱃지를 수여하는 행사 등 선배와 신입생 간 만남의 장도 이루어졌다. 입학식 이후에는 기초의학교실 소개 및 교과목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신입생 학부모간담회와 의학관 투어행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2010학년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식 행사를 통해 신입생 가족들이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학교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10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열려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식이 2월 28일 본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첫 졸업생(58명)이 배출된 이 행사에는 졸업생, 교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 및 상장 수여식, 동창회 입학식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의학과는 의무석사 58명, 학사 7명으로, 의무석사 학위 수여자 중, 수석 졸업상은 전근혜 학생, 대한의사협회장상은 박연꽃 학생, 대한의학회회장상은 최은영 학생, 동창회장상은 김지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번 졸업식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획, 진행한 행사로 의대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모임을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반대학원은 의학석사 23명(의학과 19명, 의과학과 4명), 의학박사 8명(의학과 7명, 의과학과 1명)을 배출하였다.

◎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발표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 4월 4일(월)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www.ewhamed.ac.kr)를 통해 공고되었다. 이번 모집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42명, 특별전형 4명을 선발하기로 하여 지난해에 비해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3명 줄어든 반면,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3명 늘어났다. 또한 정시모집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3명이 줄어든 27명을 선발하고, 신설한 외국대학출신 성적우수자 특별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모집요강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 개최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가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 컨벤션 홀과 ECC 내 이삼봉 홀에서 개최되었다(2월 9일~10일). 총 75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첫날은 학생회 선배 5명이 지도하는 멘토링과 이화역사관 체험, 신체검사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윤주 세이페 병원 원장의 '여의사 리더십'이라는 강의

가 있었다. 신입생들은 연극놀이를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인 '리더십 교육연극'을 통해 한결 가까워졌고, '동문 선배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김태임 동문으로부터 선배 여성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진 OK 내과 원장의 '기독교 의료 리더십'에 관한 강연에는 많은 학생들이 호응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으며, 이어진 'Best Ewhaian'에서는 학생회/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조별 게임 시간을 가졌다.

행사 둘째 날은 김영주 교수의 '성공적인 시간 관리'라는 강연으로 시작되었고, 이화여대 교정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박혜영 의전원장과 의학전문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김용재 학생부원장과 한제진 의학교육부장에 의한 의학전문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자치위원회가 준비한 조별 퀴즈, '미리 해보는 땡시 및 TBL' 프로그램으로 1박 2일의 캠프 일정을 마감하였다.

2011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캠프에서 동기·선배들·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한 신입생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곧 시작될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제 3회 멘토-멘티의 날



제 3회 “멘토-멘티의 날” 행사가 지난 2월 24일 본교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다. 이화 멘토링 프로그램(Ewha Linkage Fellowship)은 한발 앞서 의료전문인으로 활동 중인 선배와 미래의 주인공인 후배들이 연계되어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발족하였다. 올해로 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15명의 멘토 선배님들과 30명의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다. 박혜영 의전원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저녁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멘토링 강의로는 이화사 회장(주)루펜리 대표의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멘토 선생님들 소개 및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 2011년도 전체교수워크숍

2011년 3월 17일(목) 의학관 B동 강의실에서 전체교수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제대 이병두 대학원장의 ‘학습 성과 바탕의 의학교육’과 이종태 교수의 ‘인제대 학습 성과 바탕의 교육과정 소개’ 및 ‘졸업역량/학습성과 개발 경험’이라는 초청 강연이 마련되었다. 강연 후에는 과목별 책임교수와 참여교수들이 6조로 나누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실제 이대의전원의 학습 성과 개발(졸업 역량 항목 개발/Phase&Course Outcome 개발/Lesson Outcome 개발) 및 보완의 자리가 이어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혜영 의전원장과 한재진 의학교육부장, 보직 교수 및 과목 책임교수 등 78명이 참석하였다.

◎ 2011학년도 의전원 2학년 BLS-Provider for HCP과정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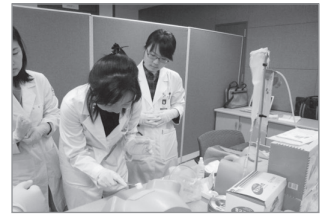
2011학년도 의전원 2학년 기본 심폐소생술 의료인 과정(BLS-Provider for HCP)이 3월 18일(금)부터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EMSC)에서 시작되었다.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EMSC)는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정하는 BLS-Provider Training Site이다. 위 과정은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 환자 발생 시의 알고리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AED), 기도폐색환자 발생 시 대처에 대한 술기 중심의 수업으로 총 5시간에 걸쳐 3인 1조의 팀 과정으로 진행되며, BLS-Provider for HCP과정에서 요구하는 3회의 실기시험과 1회의 필기시험 합격 시 미국심장협회(AHA)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의전원 2학년 전원에게 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 2011년 의전원 3학년 임상의학 술기 실습

이화의학시뮬레이션센터(EMSC)에서는 의전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학 술기 실습을 시작하였다. 위 실습은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임상의학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각 과별 실습 일정에 맞추어 병

원에서 실제 접하는 술기를 모형틀을 통해 실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의학 술기실습이 병행되는 과목은 산부인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등이며 각 임상 과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 이화해외의료봉사단, 베트남 의료봉사

이 화 해 외 의 료 봉 사 단 (Ewha Medical Care)이 베트남 타이빈성 응엔시 인근으로 제 25차 동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2011년 1월 15일~22일).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봉사활동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부터는 매년 동·하계 2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베트남 봉사는 올해로 8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11년 동계 의료봉사단은 치과 전문의 교수를 단장으로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소아과 김혜순 교수,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를 비롯해 이화여대 의대 동문 산부인과 개원의 김혜영 원장과 전공의,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와 이화여대 재학생 등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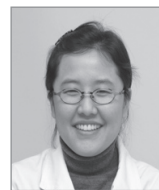


봉사단은 17일부터 3일간 응엔 시 근처 농촌지역에서 매일 약 300여명의 환자를 진료 하였으며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 봉사도 진행하였다. 20일에는 응비시의 응비의료원을 공식 방문하여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또한 21일에는 하노이 시에 있는 썬니 클리닉(Sunny Clinic)에서 진료 및 지역의를 대상으로 김영주 교수, 김혜순 교수, 및 김한수 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학생 및 교수 소식

[교/수/소/식]

* 신입 교수 (2011년 3월 1일자)



- 예방의학교실 정최경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석사
-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분자외과학교실 박영미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Ph.D.



- 응급의학교실 최윤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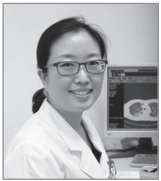


- 치과학교실 김민지교수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사
-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의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퇴임 교수 (2011년 2월 28일자)

소 속	이름	비고
신경외과학교실	박동빈 교수	정년퇴직
약리학교실	최정윤 교수	의원퇴직
치과학교실	정영정 교수	의원퇴직

* 류연주 교수, '결핵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내과학교실 류연주 교수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결핵 예방과 치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류연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렴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면서 결핵환자의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연구에 참여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민간 공공 결핵협력사업의 운영위원으로서 폐결핵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환자의학 전문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의료원 동정

◆ 이대여성암전문병원 '브랜드스타', '글로벌 의로서비스 대상' 언어어 수상

이화의료원(의료원장 : 서현숙)이 2009년 3월 국내 3차 의료기관 최초로 여성암을 특화, 육성하기 위해 개원한 이대여성암전문병원(병원장 : 김승철)이 개원 2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암 치료' 대표 브랜드 선정에 이어 글로벌 의로서비스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2011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암 치료' 최고의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09년 3월 개원 이래로 2011년 2월 현재까지 2년 만에 여성암 수술 건수가 3.3배 신장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후 이대여성암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입환자도 2.5배 늘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글로벌 의로서비스 대상' 특성화병원부문에 선정되어 글로벌 의료기관의 잠재력도 인정받았다. 2009년 개원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온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 최초 여성암 전문화와 더불어 국내 최초 여성암 환자를 위한 레이디 병동 설치 등 여성 친화적 진료환경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철 병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여성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독특한 서비스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 국내 최고의 여성암 전문병원을 넘어서 세계의 우수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창회 소식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에 조종남 동문 선임



조종남(24회, 조윤희산부인과)동창은 지난 3월 12일 오후2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회관 8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1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총회에서 동창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7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화의대 창립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총동창회에 선출된 조종남 회장은 "역대 동창회장님과 임원님들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동창회, 화합의 동창회, 열정의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화의대 동창회 정기총회 열려

이화의대 동창회는 3월 5일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메랄드룸에서 서현숙 의료원장겸 의무부총장,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박경아 한국어자 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운 집행부를 이끌고갈 제18대 배순희 회장과 윤석완 수석부회장(성완산부인과)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총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기탁장학금 및 '백분의 일 나눔 장학금'을 20여명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백분의 일 나눔 장학금'의 경우 내년에는 약 200명 이상의 동문이 참여해 모금액이 2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의대 동창회장에 배순희 동문 선임]



배순희 회장은 1975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이화여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 2006년 서울대 의료경영 고위과정을 1기로 수료했다.

1980년 이화의대부속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거쳐, 1983년부터 배순희 산부인과(미즈앤미)를 개원한 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현재 이화여대 외래교수(산부인과), 서대문구의사회 부회장, 의협 중앙대의원, 대한산부인과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에스터상에 오기근 동문 선정]



오기근 동문은 영상의학, 특히 유방영상 분야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이화의대 졸업생의 위상을 널리 알린 바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오기근 동문은 1968년 이화의대를 졸업 후, 연세의대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시카고 Ravenswood Hospital Rotating Internship 등을 거쳐 연세의대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주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올해의 이화인에 신해림 동문 선정]



신해림 동문은 이화의대에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 후 지역사회위생학과 공중보건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지난 2007년부터 WHO 국제암연구소(프랑스 리옹 소재)에서 세계 각국의 암 부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10년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에서 비감염성질환 및 건강증진업무를 맡아서 수행 중에 있다.

[이화를 졸업하며...]

〈이화의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 이영이〉

마흔이 넘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이화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지 벌써 4년. 또 다시 봄이다. 2005년 초 이근후 박사가 이끄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한 네팔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삶의 전환점. 뭔가에 홀린 듯 귀국하자마자 18년간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두 번의 시험 끝에 2007년 이화 의전문 1기로 합격했다.



돌이켜 보면 참 겁 없이 저지른 일이었다. 미지의 삶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넘쳤고 체력에도 자신이 있었다. 그냥 시작만 하면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다. 힘들어도 눈 딱 감고 4년만 버티자, 그러면 의사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 같지 않았다. 주변의 격려와 덕담을 들으며 의기양양하게 입학했지만, 나는 겨우 1학년이었고, 이과계열을 전공한 스무살 아래 동기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 정치적 격변기였던 80년대 전 반에 느슨한 대학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고등학교 식 수업방식도 견디기 힘들었다.

학부에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번에는 난생 처음 접하는 생화학, 생리학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교수님들의 속사포 같은 강의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엄청난 분량의 강의록은 다시 한번 훑어보기도 어려웠다. 교수님들도 이 늦깎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잠깐. 새로운 세계에선 나날이 신기한 발견의 연속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많은 질병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마치 자연의 숨은 비밀을 알아낸 듯 기뻐다. 젊고 건강해 병이란 것이 뭔지 모를 동기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후후... 너희는 알 수 없을꺼야” 라며 으스스했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약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체력이나 암기력으로 말하자면 동기들을 당할 수 있으리라, 그래도 좀 더 긴 시간을 살아오며 터득한 눈치랄까, 요령이랄까 하는 것이 공부에 보탬이 될 때가 있었다. 병원 실습 때 환자들을 직접 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내 나이가 편했다. 환자에게 학생 신분임을 밝혀도 그들은 내 나이의 무게에 속아 의사처럼 대해 주었다. 때로는 바쁜 주치의 선생님에게는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치료방향을 정하는 데 작은 단서가 된 적도 있다.

1학년 초 해부학 실습실에서 카테바를 앞에 두고 난감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졸업이다. 이화에서 만나 함께 공부한 동급생들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됐다.(내 멋대로 그렇게 부르고 싶다) 가끔 음식점에 함께 가면 주변에서 “딸이나? 닳은 것 같다”고 말을 걸어와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나이에, 그렇게 젊고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한 친구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게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먼 길을 돌아 다시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화의 선배들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나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진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공부하는 4년 내내 불안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많은 일을 하게 도와주었다. 국시성적이 전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전문 졸업생 전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모두 바라던 대학병원의 인턴이 되어 미래의 꿈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꿈과 열정만 갖고 이화의전원에 뛰어든 우리들이 한 사람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할 일이다. 의전문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맞게 훌륭한 커리큘럼, 잊지 못할 강연과 강의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싶다.

특히 의사로서의 참된 자세를 일깨워준 PDS나, 생명윤리 집담회, 여성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보게 한 성인지의학 같은 마이너 강의가 참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 아마도 이화의전원이 아니면 접할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으리라.

나는 이제 곧 세브란스에서의 수련 과정에 들어간다. 제대로 의사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 4, 5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이제 간신히 학생 신분을 면한 자신을 보면 마음이 조금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6년전 네팔 여행에서 의료봉사팀을 지켜보며 느꼈던 감동의 순간을 떠올린다. 내 손발만 있으면 어디서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라는 멋진 직업, 씬 살에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최소한 20~30년은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가슴 벅찬 그 결심을 말이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시작하길 잘했다. 올해 내 나이 마흔 여덟이다. 목표보다 2년 빨리 의사가 된 내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내 인생의 봄을 완성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쏟아온 나의 정열과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국제 교류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현황]

기금명	후원자	약정액	비고
국제교류(의전문)장학금	조인호	12,000,000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박동빈	10,000,000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이희승	6,000,000	교수
	이진화	4,800,000	교수
소아과학교실 발전기금	김문자	6,000,000	동창
선배라면 약정현황	이희승	2,400,000	교수
	최윤희	2,400,000	교수
	김성은	960,000	교수
	심정원	480,000	동창

알/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